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한국 땅에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올해도 구세주의 약속 계속 지켜질 것으로 확신

아직도 우리나라에 장마가 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멍청하거나 무식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장마와 같은 기상현상을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있다. 198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승리제단과 승리신문에서는 장마가 안 진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기상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장마가 진다고 하면 비가 안 오고, 장마가 끝났다고 하면 비가 온다고 하면서 장마가 없어진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할 때 장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바보들일 것이다.

국민들을 무식하고 멍청한 바보로 만들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언론기관들이다. 기상청에서는 장마라는 용어를 이미 벌써 2009년부터 사용 안 하고 있다(아래 기사: 2008. 8.23일자 조선일보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언론사가 장맛비와 장마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지 잘 모르겠지만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로 말미암아 구세주가 장마 안 지게 하겠다는 약속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시청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은 엄연히 진실을 은폐하거나 호

승리신문 7월 1일 창간 8만 4천호

기상청, 장마 예보 이제야 안하기

1981년부터 장마 막아온 구세주와 승리제단의

2차 보도 내용
기상청의 시작과 종말기로 결정했다. 왜 보면 '없으로 가와 장맛비, 장마를 지게 할 것'이라고

장마가 시작되도 비가 내리지 않거나 불꽃이 내리면 비가 오고, 장마가 끝나고 하면 비가 온다고 하면서 장마가 없어진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할 때 장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바보들일 것이다.

사라져
구세주와 승리제단이 장마를 막아온 것은 1981년부터이다.

정도령님은 1981년 8월 18일, 처음(영생의 대도)를 설하신 후 다음과 같이 5가지 약속을 하시고 이행하고 계십니다.



구세주

세계 구세주의 7년 구세주인 김도원님께서 1981년 8월 18일, 처음(영생의 대도)를 설하신 후 다음과 같이 5가지 약속을 하시고 이행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태동이다. 구세주가 있는 날이 오면, 더 이상 장마가 안 올 것이다. 장마가 없어진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할 때 장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바보들일 것이다.

한국에 태동이다. 구세주가 있는 날이 오면, 더 이상 장마가 안 올 것이다. 장마가 없어진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할 때 장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바보들일 것이다.

조선일보 2008년 8월 23일자 보도 내용

기상청이 내년부터 장마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예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상청은 이와 관련해 22일 “앞으로 기상청 예보에서 장마와 장맛비, 장마철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가 시작되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거나 장마전선이 물러난 이후에 장마 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장마 예보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국민들에게 여름철(6~8월)에 내리는 비가 굳이 장마비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알라도 별 의미가 없다는 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당일날 우리나라 모든 매스컴 일체는 기상청의 장마 예보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다루었다.

도하는 나쁜 일이다.

보릿고개 넘어가던 배고픈 설움

장마는 우리 민족의 재난 중의 재난

이었다. 모내기철에 농부들이 열심히 모를 낸 후에 장맛비가 내리면 모가 뿌리를 내리기 전이므로 모가 다 떠내려가 버리게 된다. 그러면 흉년이 든다.

그래서 선조들은 장맛비를 두려워했다. 장맛비가 내리면 장탄식하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유월부터 시작하여 내리는 장맛비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근심과 슬픔을 주었는지는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장마란 술어는 조선 선조 9년(1576년)에 간행된 한자교습서 '신증유합(新增類合)'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장마는 적어도 500여 년 이상 지속되어온 기상현상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배고픈 설움을 많이 당했다.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다. 춘궁기(春窮期), 즉 겨울에는 농사가 없으므로 하릴없이 지내다가 봄이 되면 곡식이 다 떨어져서 보리조차 먹기 힘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보리밥을 먹으며 넘어가는 고개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고개를 넘어가려면 숨이 턱에까지 차오르며 가빠진다. 70대 이상 어르신들 쳐놓고 거의 2~3년에 한번 꼴로 흉년이 들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장마, 1981년부터 사라져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보릿고개, 춘궁기라는 술어는 실감이 안 가는 말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었다. 구세주 조희성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풍년의 축복 덕택이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나라에 장마가 없어진 것은 구세주가 출현한 1981년 이후부터이다. 승리제단 신도들이라면 모두 다 아는 평범한 사실이다. 구세주는 당신에게 와서 묻고 일기 예보를 하라고 농담반으로 말씀하신 적이 많다. 장마 때에는 비가 안 오고 장마가 끝나면 비가 더 많이 오는 것을 이제는 기상청 관계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세주가 조화를 부려서 그렇게 된 것만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가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11)

“감정 자체가 죄”

사람은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나라는 의식을 없애야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수십 년간 통곡하고 곤두박질치는 투쟁을 쉬지 않고 한 끝에 비망경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지면 죄를 지었다가 되고 감정을 갖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나무는 슬프다고 슬퍼하지도 않고 기쁘다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나무는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근묵자흑(近墨者黑)

사람은 서로 교류하는 사람끼리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는 더욱 그렇다. 결명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결명해지기 쉽고, 반듯한 아이들과 어울리면 반듯해진다. 어려서 누구와 사귀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

사람끼리 어울리면 좋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도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된다. 약한 영이 강한 영에게 먹힌다. 즉 선한 사람의 영이 약하고, 악한 사람의 영이 강할 때에는 악한 사람에게 물들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선한 사람에게 물들게 된다.



고 해도 가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라거나 며느리를 잘 고르려면 부모님의 됨됨이를 먼저 보라고 한다.

이 세상을 우리는 죄악 세상 또는 사바세계라고 한다. 죄인 또는 중생들 중 강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다스리고 악한 영들은 그에 복종하며 산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도 이에 해당되는 교훈이다.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을 뒤집어엎으려고 내려오신 존재가 바로 구세주이다. 구세주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영이다. 마귀 중에서 가장 강한 마귀를 꺾어 이기고 승리하였다. 당시 영생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인데 앵커는 그들에게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어. 그들의 답은 영생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진한 답이기는 하지만 그 말속에는 작은 진리가 들어 있다. 바로 근묵자흑(近墨者黑)이다. 먹물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 뜻처럼 영생하는 것이다.*

새식구 환영 100일 잔치



김수정 씨가 새식구 100일잔치에서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는 모습(좌측 첫번째)

2017년 6월 10일 토요일 본부제단 2층 회의실에서 김수정 님의 새식구

환영 100일 잔치가 있었다. 김수정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할머니(이주희 권사)를 따라 어린 시절 제단에 한두 번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제단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늘 주님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승리제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고, 매일 매일 그날의 예배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매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배를 보았다

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제단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김종만 승사(1지역장)뿐 인지라 김 승사에게 전화를 하였고, 2월 24일부터 21일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100일을 채운 아내와 끈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인내로 완주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으시길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三神一體一人出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구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낸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민·초·청·강·연·회

천손민족사관으로 본 단군민족의 뿌리역사와 신문명 시대의 도래

“한민족 대통합의 역사와 인류가 하나되기 위한 시민초청강연”
“역사를 잊은 민족, 애국하는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

주요 강연내용

- 1 국립 중앙박물관에 있는 고조선 시대 사용된 고대 히브리어 문양이 새겨진 와당의 실체?
- 2 메시아 정도령은 단군민족이 고대 이스라엘 12지파중의 하나인 단지파의 후예임을 밝혔다.
- 3 인간, 진화된 동물인가? 신의 피조물인가? 아니면... ?
- 4 성경 창세기에 숨겨진 단군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혔다.
- 5 한민족을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
- 6 한민족의 국훈을 되찾을 때 한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



[고대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

- 강연일시: 2017년 7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 강연장소: 부천시 역곡3동 175-2, 승리제단 대강당
- 강연주제: '천손민족사관'으로 본 단군민족의 뿌리역사와 신문명 시대의 도래
- 주 최: 우리역사 바로잡기 운동본부
- 후 원: 승리제단, 국조숭배 총화국회, 도서출판 해인